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KSOE and Posco team up to develop liquefied CO2 carrier

한국조선해양이 포스코 등과 2025년까지 20,000CBM급 대형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을 공동개발한다고 보도됨. 현대미포조선이 용접 기술, 포스코가 저장탱크용 강재 및 이용기술 개발을 맡음. (Tradewinds)

아부다비 LNG선 입찰 중단

LNG선 가격상승과 건조 slot 부족으로 아부다비 선사 Adnoc L&S가 LNG선 발주 입찰을 일단 중지시킴. 표준 LNG선 가격이 척당 2.1억달러까지 상승해 5척 입찰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2022년까지 미루기로함. (선박뉴스)

'컨'선 발주량 전무후무한 기록

매주 컨테이너선 운임이 치솟으며 선주들이 신조선에 많이 투자함. 현재 글로벌 컨테이너 오더북 619척 중 381척이 2021년 새로 발주된 선박임. 올해 가장 많이 발주된 사이즈는 16kTEU급임. 한편, SCFI는 4,386 포인트를 기록하며 계속 상승함. (선박뉴스)

구주항로/ 스케줄 지연 극심...정시운항률 20%대로 곤두박질

통상 컨테이너선이 아시아-유럽을 오가는 운항기간은 75일이나, 현재 약 100일 이상이 걸릴 정도로 체선현상이 심각함. 중국 Ningbo항은 9월 1일부터 항만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코리아쉬핑가제트)

US Gulf oil looks to have avoided heavy damage from Hurricane Ida

허리케인 아이다가 4등급에서 1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이 약화되어 카트리나 당시보다 피해가 적어 유가상승폭이 제한됨. 가동 중단된 석유 생산 설비는 언제 재가동될지 알 수 없다고 보도됨. (Tradewinds)

Accelerate in Brazil FSRU win

미국 Accelerate Energy가 브라질 Petrobras의 Bahia LNG FSRU를 수주함. 입찰 당시 유일한 참가자였음. 1,760만달러 규모로 30개월 동안 계약이 진행될 예정임. (Upstream)